

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에서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이용한 완전구강회복 증례

송광섭*,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는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완전구강회복을 시행하게 된다. 부분무치악인 환자에서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할 경우, 무치악 부분은 가공의 치(bridge)의 pontic으로 수복하거나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유치악부는 기존의 고정성 보철물로, 무치악부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물로 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식한 임플란트가 골유착되지 않아서 제거하는 경우, 일부분의 임플란트는 제거되고 골유착된 나머지 임플란트는 구강 내에 잔존하게 된다. 이 경우 인접한 자연치와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보철수복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하악 좌, 우측 소구치의 결손과 함께 잔존치 교합면의 심한 교모로 인한 저작기능의 손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이다. 첫 내원 당시 잔존치의 이동으로 결손된 소구치부의 공간은 거의 폐쇄되어 있었고, 잔존치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하악 우측 구치부에 결손공간이 남아있었다. 임상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부분치아결손증(oligodontia)과 함께 법랑질형성부전증 (amelogenesis imperfecta)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환자는 하악 우측 구치부의 무치악부에 임플란트를 매식하여 보철수복하고, 나머지 자연치를 이용하여 상, 하악 고정성 보철물로 완전구강회복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식한 임플란트 중 1개가 실패하여 제거되었으므로, 인접치인 자연치와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였다. 자연치에는 이중관을 제작하여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semirigid connector로 연결하였다.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보철수복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치의 침하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이중관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attachment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 중 이중관을 이용하여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결, 보철수복한 증례가 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